

가족의 사회관계망 유형화 연구

-도시 핵가족 주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ypes of Social Networks of Housewives in Urban Nuclear Families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원효종**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옥선화

Dept. of Child Development & Guidance, Hannam Univ.

Part-time Lecturer : Won, Hyo-Jong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 : Ok, Sun-Wh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ypes of social networks of urban housewives according to different network composition patterns and to analyze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identified type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589 full-time housewives residing in Taejeon cit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social networks of housewives in urban nuclear families were classified into eight types: the kin network, the non-kin network, the kin-centered network, the friend-centered network, the neighbor-centered network, the associate-centered network, the parallel network, and the decentralized network. 2)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size, density, homogeneity, duration, proximity, frequency, closeness, direction) varied according to the type. The kin network type and the non-kin network type showed extreme degrees in network characteristics. The parallel network type and the decentralized network type showed an average level of network characteristics. The kin-, friend-, neighbor-, and the associate-centered types showed network characteristics of an intermediate level between the single-category types and the decentralized type. 3) The average levels of function of social network types were different in only two(service support, interference) of the six function areas(emotional support, service support, material support, information support, social companionship support, interference). The average level of service support by the non-kin network type was higher than other types. The average level of interference by the kin-centered network type was higher than other types, and that of the neighbor-centered network type was lower than other types. On the other hand, the total amount of function performance of social network types was different in all function areas. The total amount of social support given by the decentralized network type was greater than the other types. The total amount of interference given by the non-kin network type was smaller than the other types.

▲ 주요어(Key words):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 사회관계망 유형(social network type), 사회관계망 특성(social network characteristic), 사회관계망 기능(social network function)

*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주저자 : 원효종(E-mail: hjwon823@hanmail.net)

I. 문제제기

가족원들이 외부의 개인 및 집단과의 유대를 통하여 형성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은 혈연 및 지연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가족에 대하여 대체로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즉 가족의 사회관계망은 일차적 지원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족의 적응과 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동을 규정하는 사회적 맥락으로서 가족의 삶의 형태와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가족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는 가족의 적응과 복지의 증진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나 가족현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우선적으로 가족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의 구조와 기능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친족, 친구, 이웃, 동료 등 사회관계망의 구성요소인 관계범주들이 각기 가족과 어떻게 교류하는지를 파악하는데 관심을 집중해 왔다(변화순, 1990; 오선주, 1990, 1992; 이경희, 1988; 이동원, 1984; 이성희, 1993; Ishii-Kuntz & Seccombe, 1989; Litwak & Szelenyi, 1969; Oh, 1988). 즉, 이들은 가족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관계범주별로 상호작용적 특성과 기능을 분석하고 이들간의 차별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관계망 구성요소들의 배열과 조직에 의해 나타나는 형태적 특성과 상호작용적 특성 및 기능의 누적적인 효과를 검토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사회관계망을 관계들의 체계로 규정하고 전체로서 사회관계망을 분석하는 연구들(원효중·옥선화, 1993; Chatters, Taylor & Neighbors, 1989; Fisher, Solie, Sorell & Green, 1989; Gaudin & Davis, 1985; Leslie & Grady, 1985; Rands, 1988)에 의해서 보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방법도 실제적으로 각 가족의 사회관계망 내에 상이하게 포함되어 있는(서병숙·김유정, 1993; 성규탁·박영란, 1988; 원효중·옥선화, 1993; 최정아·서병숙, 1992; Milardo, 1988) 관계범주들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전체로서 사회관계망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경우, 각 관계범주들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Litwak & Szelenyi, 1969; Ward, 1985)들이 상쇄되어 사회관계망 특성들이 중간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구성형태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면 그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사회관계망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데 유용하지 못하거나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관계망을 전체로서 분석하면서 사회관계망 내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범주들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는 분석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는 사회관계망의 유형화 작업을 통하여, 즉 사회관계망을 구성형태에 따라 분류한 후 각 유형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회관계망 유형에 관한 검토는 일찌기 Bott(1955: 1971재인용)의 탐색적 연구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주로 Bott 가설의 검증을 시도하는 연구(Gordon & Downing, 1978; Oh, 1988; Rogler & Procidano, 1986)나 그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연구들(Broderick, 1988; Granovetter, 1973)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밀도나 구성형태를 기준으로 사회관계망을 분류하고 있지만 연구자에 따라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체계적인 유형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사회관계망 유형에 관한 연구와 비교할 때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관계망 유형에 관한 검토는 극히 미흡한 형편이다. 몇몇 연구(서병숙·김유정, 1993; 성규탁·박영란, 1988; 이경희, 1988; 최정아·서병숙, 1992)에서 부분적으로 사회관계망 구성형태를 분류하고 있으나 유형화 연구로 보기는 곤란한 상태다.

이상과 같은 연구상황에서 볼 때, 우리나라 가족의 사회관계망에 관한 심층적 이해와 사회관계망과 가족행동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사회관계망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는 본격적인 사회관계망 유형화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첫째, 사회관계망의 구성형태를 고려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둘째, 각 유형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을 분석하여 그 성격을 통합적으로 규명해 봄으로써 실제적으로 가족들이 어떠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밝히고자 한다.

사회관계망의 유형은 다양한 사회관계망 특성에 대한 정보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사회관계망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가족의 사회적 맥락과 자원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공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관계망과 가족행동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연구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연구 고찰

1. 사회관계망의 개념 및 측정

사회관계망이란 일반적으로는 사회체계내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일련의 대인관계들을 표상하지만 분석적 개념으로 사용될 때는 한정된 일군의 사람들간에 존재하는 특정한 연계의 집합(Mitchell, 1969:2)으로 정의된다.

분석적 개념으로서 사회관계망은 크게 두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전체적관계망(whole network)을 의미하거나 사적관계망(personal network)을 의미한다(Bott, 1971:318, Wellman, 1981). 전체적관계망이란 한 인구집단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각종 유대들을 말하며(Wellman, 1981), 사적관계망이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접촉하고 있는 모든 사회적 단위들을 말한다(Bott, 1971: 318-322; Mitchell, 1969).

가족 연구분야에서 사용하는 사회관계망 개념은 대체로 사적 관계망을 의미한다. 중심되는 개인의 사회화 대행자로서(Cochran & Brassard, 1976) 사회적 정체감의 형성에 기여하는 사적 공동체로서(Hirsh, 1981), 개인의 행동을 규정하는 사회적 맥락으로서(Lee, 1979; Milardo, 1988) 또는 개인의 사회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일상적 생활에서 혹은 위기시에 요구되는 도움을 제공하는 지원체로서(ElI, 1984; Ward, 1985), 가족의 사회적 자원으로(차성란, 1997) 간주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사회관계망 개념은 중심되는 개인이 친족, 친구, 혹은 친지 등 타인들과 정서적, 행동적 상호의존을 통하여 결합하고 있는 일군의 사람들(Rands, 1988) 혹은 특정한 개인이나 부부를 알고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의 집합(오선주, 1992; 원효중·옥선화, 1993; Milardo, 1988)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사적관계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흔히 관계망 내에 포함되는 관계범주를 친족, 친구, 이웃 등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지만 사회단체의 구성원(Lee, 1979), 직장동료, 전문적 지원자(ElI, 1984)등을 따로 구분하거나 친구관계를 계원, 동창회원, 종교집단의 교우 등으로 세분하기도 한다(오선주, 1990; 1992; 최현숙, 1990). 이 연구에서는 사회관계망 범주에 친족, 친구, 이웃관계와 함께 직장, 종교단체, 각종 모임과 사회단체에서 형성되는 동료관계를 포함시켜 관계범주를 네가지 종류로 구분하고자 한다.

사회관계망을 측정하는 방법은 연구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략 형식적 관계 측정법, 의미있는 타자망 측정법, 상호작용적 관계망 측정법, 그리고 교환관계망 측정법 등 네가지로 구분된다(이원숙, 1995:50-54; Milardo, 1988; 1989). 이것들은 자기 상이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Milardo, 1989) 질문지법에 의하여 사회관계망을 측정하는 경우, 교환관계망 측정법이 특히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환 관계망 측정법은 관계망 구성원들이 응답자에게 행하는 구체화된 기능들 즉 교환영역을 6~12개 문항을 통해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이러한 기능을 충족시키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도록 함으로써 관계망 구성원의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다(Barrera, 1981). 그러므로 교환관계망 측정시에는 우선적인 작업으로 교환영역의 선정, 즉 관계망 구성원의 기능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환영역은 대체로 사회적지원의 유형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Rands, 1988; Wellman, 1981; Wilcox, 1981). Barrera(1981)는 아리조나 사회적 지원 면접스케줄(ASSIS)이라는 교환관계망 척도를 개발하면서 교환영역을 개인적 감정의 공유, 물질적 원조, 조언, 긍정적 피드백, 신체적 원조, 사회적 참여, 부정적 상호작용 등 7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교환관계망 측정법은 다양한 사회적 교환영역을 통하여 상이한 사회적 배경에 있는 개인들을 관계망 구성원으로 규명하여 포괄적인 사회관계망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관계망 구성원의 포함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사회관계망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Milardo, 1988, 1989; Wilcox, 1981).

2. 사회관계망의 유형화

선행연구에서 사회관계망 유형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크게 밀도에 의한 유형화와 구성형태에 의한 유형화로 구별할 수 있다.

밀도에 의한 유형화는 Bott(1955: 1971:52-96재인용)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Bott는 사회관계망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지내는 경향이 있는지의 여부, 즉 밀도가 사회관계망의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간주하고 사회관계망 유형을 밀도가 높은 사회관계망(밀접한 관계망)과 밀도가 낮은 사회관계망(소원한 관계망)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방법은 Bott의 가설에 근거하여 부분간 역할관계와 사회관계망 구조간의 관계를 검증하려는 연구들(Gordon & Downing, 1978; Oh, 1988; Rogler & Procidano, 1986)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밀접한 관계망은 친족구성비율은 높으나 동료구성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Bott가 전체로서 가족의 사회관계망 유형을 분류한데 반하여 Epstein(1969)과 Granovetter(1973)는 사회관계망 내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관계망의 유형을 밀도와 유대의 강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Epstein(1969)은 밀접한 부분관계망을 유효관계망, 소원한 부분관계망을 확대관계망이라 규정하였고 Granovetter(1973)는 강한 유대들로 구성된 부분관계망을 밀집된 관계망, 약한 유대로 구성된 부분관계망을 저밀집 관계망으로 규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밀도에 의한 유형화는 관계범주들이 어떠한 비율로 구성되는가 즉 사회관계망의 구성형태에 의해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관계망 유형화에 있어서 밀도보다는 구성형태가 보다 근본적인 분류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사회관계망을 구성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은 개인 및 가족의 사회관계망내에 어떤 관계범주의 사람들이 어떻게 분포하는가에 따라서 관계망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구성형태에 따라 사회관계망을 분류하는 근거는 사회관계망을 구성하는 관계범주들이 자기 상이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관계망 구성형태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대략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사회관계망을 구성하는 관계 종류의 다양성에 따라서 사회관계망 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이다(Rogler & Procidano, 1986).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관계들로 구성된 사회관계망을 개방 관계망, 한두 종류의 사회적 관계들로 구성된 사회관계망을 폐쇄 관계망으로 분류한다. 둘째는 가족, 친족, 친구, 이웃 등 관계범주들의 조합형태에 따라서 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서병숙·김유정, 1993; 성규탁·박영란, 1988; 최정아·서병숙, 1992).

Chatters와 동료들(Chatters, Taylor & Jackson, 1985)이 관계 범주를 가까운 친족, 먼 친족, 비친족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조합형태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방식도 이에 속한다.

셋째는 사회관계망을 구성하는 각 관계범주들의 지배성 여부에 따라서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친정중심형, 비구심적균분형, 출가한 자녀중심형으로 분류되고 있다(이경희, 1988).

이상에서 살펴본 구성형태에 따른 사회관계망의 유형화는 개념적인 수준에서 연구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각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는 있지만, 방법론으로서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세가지의 방법을 참고해서 유형화를 하려고 한다. 그중 조합형태는 관계범주의 다양성과 관계범주별 지배성과 중복되는 측면이 많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구성형태의 두차원으로 다양성과 관계범주별 지배성을 선택하여 사회관계망 유형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사회관계망 다양성에 따라서 폐쇄형, 개방형, 반개방형으로, 관계범주별 지배성에 따라서 친족중심형, 친구중심형, 이웃중심형, 동료중심형, 균분형으로 분류한 후 이들을 조합하여 최종적으로 사회관계망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3. 사회관계망 유형의 분석요소

1) 사회관계망의 구조적 특성

선행연구에서는 사회관계망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관계망 특성들이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관계망 특성들은 크게 형태적 측면과 상호작용적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Litwin, 1996).

형태적 특성이란 사회관계망의 구성과 조직에 의해 나타나는 특징들(Leslie & Grady, 1985), 혹은 관계망내 이자관계의 배열과 존재 유무, 관계의 전반적 패턴을 반영하는 특성(Milardo, 1988)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크기, 구성, 밀도, 동질성 등이 포함된다. 크기는 한 개인이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상호작용하는 상이한 개인들의 수를 말하며(Surra, 1988; Wilcox, 1981) 사회적 통합의 직접적인 지표로서 잠재적 지원층을 보여준다.(Catters, Taylor & Jackson, 1985). 구성은 사회관계망 구성원들이 누구인지를 묘사하는 것으로서 '사회관계망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특성'(Rands, 1988; Marsden, 1987) 혹은 '구성원의 분포'(Milardo, 1989)로 정의되고 있다. 사회관계망 구성원과 응답자가 친족관계인가 비친족관계인가 혹은 어떤 종류의 관계인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밀도는 한 개인의 사회관계망 구성원들이 서로간에 얼마나 널리 연결되어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다(Cochran & Brassard, 1979). 조작적으로는 한 개인 또는 가족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개인 및 가족과는 상관없이 서로 알고 만나는 정도(Bott, 1971: 59; Milardo, 1988)로서 정의되고 있다. 동질성이란 사회관계망 구성원들의 개인적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들이 중심된 개인과 유사하거나 다른 정도(Cochran & Brassard, 1979; Broderick, 1988)를 말한다. 따라서 유사성(Leslie & Grady, 1985) 혹은 이질성(Gaudin & Davis, 1985)으로도 불리고 있다.

상호작용적 특성이란 사회관계망내 이자관계 자체의 성격을

말하며(Mitchell, 1969), 관계 특성(Cochran & Brassard, 1979) 또는 유대 특성(Wellman, 1981)이라고도 한다. 이 특성은 상호작용의 패턴이나 관계의 정서적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Leslie & Grady, 1985) 이에는 지속성, 지리적 근접성, 접촉빈도, 친밀도, 방향성 등이 포함된다. 지속성은 중심된 개인과 사회관계망 구성원사이에 관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가를(오승환, 1990; Cochran & Brassard, 1979)말하며 흔히 기간이라 부르기도 한다. 지리적 근접성은 거리라고도 불리며 중심된 개인과 관계망 구성원들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성규탁·박영관, 1988; 오승환, 1990)를 말한다. 이것은 관계망 구성원들이 중심된 개인과 얼마나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며(Cochran & Brassard, 1979) 개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나(Petrowsky, 1976) 관계망 구성원들이 제공하는 도움의 종류 및 정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최정아·서병숙, 1993; Litwak & Szelenyi, 1969; Parish, Hao & Hogan, 1991). 접촉빈도란 중심된 개인이 사회관계망내 각 구성원과 접촉하는 정도(Mitchell, 1969)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 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이다(Gaudin & Davis, 1985). 친밀도란 중심된 개인과 각 사회관계망 구성원간의 정서적 몰입의 정도(Leslie & Grady, 1985)를 말한다. 이것은 흔히 관계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인식되고 있다(오승환, 1990; Cochran & Brassard, 1979). 방향성은 균형 혹은 호혜성이라고도 하며 관계망 내 사람들과의 관계가 일방적인지 아니면 상호적인지를 나타낸다(Mitchell, 1969). 이 특성은 관계에 대한 만족(Antonucci & Depner, 1982)과 심리적 건강 및 복지와의 관련이 깊다(El, 1984; Essex & Nam, 1987).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관계의 호혜성을 자원교환의 측면에서 '주고 받음'(이광자, 1988)이 균형을 이루는지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도움의 교환이 균형을 이루면 호혜적이라고 평가되고, 일방적인 교환의 경우에는 제공적 아니면 수혜적으로 평가된다.

2) 사회관계망 기능

선행연구에서 사회관계망 기능은 대체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관계망은 사회적 지원의 원천이 될 뿐 아니라 긴장과 갈등의 원천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정적 측면이 사회관계망의 기능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Antonucci & Depner, 1982; McCannell, 1988).

사회적 지원은 선행연구를 통해 대략 세 가지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다(이원숙, 1995:83-89; Barrera, 1981). 첫째는 기본적인 욕구충족의 측면에서 사회적 지원을 한 개인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충족되어지는 정도라고 정의한다. 둘째는 지원적인 행동의 측면에서 사회적 지원을 정서적 관심, 수단적 도움, 정보, 평가 등에 관한 대인적 교류로 정의한다. 셋째는 사회적 관계의 존재나 양, 개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구조, 관계의 기능적 내용을 포괄하여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정의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

는 것은 지원적인 행동의 측면에서 사회적 지원을 정의하는 것이다.

지원적인 행동의 측면에서 사회적 지원을 정의하는 선행연구들은 구체적으로 지원적 행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서적 지원, 서비스 지원, 물질적 지원, 정보적 지원, 사회활동적 지원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서적 지원은 사적인 감정과 관심을 표현하며 비지시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정서의 표현, 감정이입적 이해, 감정표출의 격려 또는 신뢰, 인정, 애정, 친밀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서비스 지원은 신체적인 측면에서 과업을 분담해 주는 것을 말하며 일상적 또는 집안의 경조사시 일손의 도움이 포함된다. 물질적 지원은 경제적 지원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금전과 기타 구체적인 물건의 형태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적 지원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도록 도움을 주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충고와 지침의 제공이 포함될 수 있다. 사회활동적 지원은 즐거움, 휴식, 요구적인 조건으로부터 기분전환을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참여와 통합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동반해 주는 것을 말한다. 쇼핑, 외식, 집안 길흉사 때 상호방문, 휴가나 여가활동의 공유가 포함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지원적 행동의 영역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을 정서적 관심, 물질적 도움, 서비스, 정보, 사회적 활동 등에 관한 대인적 교류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사회관계망은 자긍심의 손상, 문제행동 강화, 새로운 기회의 제한 등으로 개인 및 가족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McCannell, 1988). 과도하게 긴밀한 사회관계망은 그 내에서 작용하는 제한적이고 억압적인 규범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원조를 구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탈을 재 강화하기도 하며 관계망의 경계가 너무 엄격할 경우, 관계망의 범위를 뛰어넘는 성장경험을 제한할 수도 있다(오승환, 1990). 또한 어려움을 당한 친족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한 개인이 더 나은 장래의 경제적 상황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Parish, Hao & Hogan, 1991). 즉 관계망 구성원으로부터의 과도한 요구가 가족이나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Antonucci & Depner, 1982).

또한 선행연구(Barrera, 1981)에서 사회관계망 구성원들은 중심된 개인과 우호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반대와 간섭에 의해서 갈등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정향(1980)은 우리 나라에서 친족관계는 때로 너무 의존적이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회관계망의 부정적인 행동요소들을 Johnson과 Milardo(1984)는 관계망 방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사회관계망의 한 구성원이 사회관계망을 벗어나 외부의 개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몰입하게 되면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자원을 철회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반응으로 사회관계망 구성원들은

친밀한 관계의 발달을 지원하기보다는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제시한다. 한편 Surra(1988)는 방해를 이자관계의 한 속성에 포함시키고 '한 개인이 타인의 목표지향적인 사건의 진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망 방해 개념을 사회관계망의 부정적 기능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 즉 사회관계망의 부정적 기능을 사회관계망 방해라고 규정하고 사회관계망 구성원들이 개인에게 간섭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정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 기능과 방해 기능을 포함시켜 사회관계망 기능을 사회관계망 구성원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1) 도시 핵가족 주부의 사회관계망은 구성형태에 의해서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 2) 사회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은 사회관계망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3) 사회관계망 기능은 사회관계망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사회관계망 유형을 분석하고자 주부의 사회관계망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주부가 가족의 대인관계와 관련된 기능수행의 책임자이며 가족의 모든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가 크므로 다른 가족원의 사회관계망에 비해 주부의 사회관계망이 가족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는 사회관계망 유형화를 시도하는 초기단계의 연구로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비교기준을 마련하고자 우리사회에서 다수를 점하는 전형적인 가족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빈곤이나 결손 등 특수한 취약조건에 처해 있지 않은 도시에 거주하는 일반가족의 비취업 주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한 조사대상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1996년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12일간 전업주부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문항의 질문내용과 방식을 수정하고 질문지의 문항수를 조정하였다. 수정 보완된 질문지를 가지고 1996년 8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31일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유의적 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였다. 먼저 조사대상 도시로 대전시를 선정하고 다시 대전시내를 신시가지 지역과 기존시가지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각 지역에서 1개교씩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각각 2개교씩을 선정하여 재학생들의 어머니에게 접근하였다. 대학교는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문대학 1개교와 대학교 1개교를 선정하여 재학생들의 어머니에게 접근하였다. 특별히 산부인과 병원 3곳을 선정하여 첫 자녀를 임신한 주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총 9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는데 758부가 회수되었다. 이 가운데 부실 기재된 169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589부를 분석하였다.

3. 측정도구

1) 사회관계망 척도

주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사회관계망을 추출하기 위해서 교환관계망 측정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회관계망 척도는 선행연구들(원효중·옥선화, 1993; Barrera, 1981; Milardo, 1989; Wilcox, 1981)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Barrera(1981)의 분류방법에 기초하여 사회적 교환 영역을 정서적 교환 영역, 서비스 교환 영역, 물질적 교환영역, 정보적 교환 영역, 사회활동적 교환영역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여기에 부정적 교환영역을 포함시켜 6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었다. 각 하위영역을 한 문항으로 하여 총 6개의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각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문항과 문항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사회관계망 척도의 교환영역별 문항 내용

| 교환영역 | 문항번호 | 문항내용 |
|---------------|------|--|
| 정서적 교환영역 | 1 | 속상할 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 서비스 교환영역 | 2 |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 물질적 교환영역 | 3 | 돈이나 물건이 필요할 때 빌려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 정보적 교환영역 | 4 | 재산관리, 자녀교육, 부부문제에 관한 정보를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 사회활동적 교환영역 | 5 | 오락, 취미활동, 잡담 등을 함께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 부정적 교환영역 | 6 | 간섭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많아 부담스러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

응답은 각 문항에 대하여 해당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빈칸에 응답자가 직접 적어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6개 문항을 통하여 한번이라도 이름이 적힌 사람들을 응답자의 사회관계망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의해 구성되는 집합체를 응답자의 사회관계망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사회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인 크기는 여기에서 규명된 사회관계망 구성원의 수로서 결정된다.

2) 사회관계망의 구조적 특성 척도

국내의 선행연구들(변화순, 1990; 이경희, 1988; 이광자, 1988; Gaudin & Davis, 1985; Leslie & Grady, 1985; Tracy & Whittaker, 1990; 이원숙, 1995 재인용)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구조적 특성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척도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구성: 사회관계망 구성원 각자가 응답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질문하는 단일 문항으로 이루어진다. 응답범주로 시가친척, 친정친척, 출가한 자녀, 친구, 이웃, 교우(교회, 성당, 절), 회원(각종모임, 단체)등 7개의 관계종류가 제시된다.

② 밀도: 응답자의 사회관계망 구성원 각자가 전체 관계망 구성원 중 몇 명과 서로 알고 지내는 지를 질문하는 단일 문항으로 이루어진다.

③ 동질성: 사회관계망 구성원 각자의 생활수준이 응답자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하는 단일 문항으로 이루어진다. 응답범주는 매우 낮다 에서 매우 높다에 이르기까지 5단계로 제시된다.

④ 지속성: 사회관계망 구성원 각자와 알고 지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하는 단일 문항으로 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관계 지속기간을 5단계로 구분하여 일년미만, 1년에서 5년, 6년에서 10년, 11년에서 20년, 20년 이상 등으로 제시된다.

⑤ 지리적 근접성: 각 사회관계망 구성원들이 응답자의 거주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사는지를 질문하는 단일 문항으로 이루어진다. 응답범주는 5단계로 구분하여 걸어서 20분 이내, 차로 30분 내외, 차로 1시간 내외, 차로 2~3시간 정도, 차로 3시간 이상 등으로 제시된다.

⑥ 접촉빈도: 사회관계망 구성원 각자와 얼마나 자주 전화하거나 만나는 지를 질문하는 단일문항으로 구성된다. 응답범주는 접촉의 빈번한 정도를 5단계로 구분하여 1년에 1회 이하, 1년에 2~3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에 1~2회 정도, 거의 매일 등으로 제시된다.

⑦ 친밀도: 사회관계망 구성원 각자와 얼마나 친밀한 지를 질문한다. 응답범주는 3단계로 구분하여 매우 친밀하다, 약간 친밀하다, 별로 친밀하지 않다 등으로 제시된다.

⑧ 방향성: 사회관계망 구성원들과 어떻게 도움을 주고받는지 질문하는 단일 문항으로 이루어진다. 응답범주는 항상 내가 준다, 대체로 내가 더 준다, 비슷하게 주고받는다, 대체로 내가 더 받는다, 항상 내가 받는다 등 다섯 가지로 제시된다. 3점에 가까울 수록 호혜적이며 3점보다 작아 질 수록 일방적, 수혜적 경향이 크고 3점보다 커질 수록 일방적, 제공적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사회관계망 기능 척도

선행연구(신기영, 1991; 이경희, 1988; 이광자, 1988; 이성희, 1993; Barrera, 1981; Leslie & Grady, 1985; Wellman, 1981)들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사회관계망의 기능을 사회적

지원과 방해로 구분하고 다시 사회적 지원을 정서적 지원, 서비스 지원, 물질적 지원, 정보적 지원, 사회활동적 지원 등 6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었다. 영역별로 2문항씩 총1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서적 지원으로 위로와 인정, 서비스 지원으로 큰 일이나 병이 났을 때의 일손보조, 물질적 지원으로 돈이나 물건의 대여 혹은 제공, 정보적 지원으로 자녀교육이나 부부문제에 관한 정보와 재산관리나 살림살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사회활동적 지원으로 주말이나 휴가시 소풍이나 취미·오락활동에의 동반 등을 포함시켰다. 방해 기능으로는 과도한 요구와 간섭 및 반대를 포함시켰다. 응답범주는 항상 그렇다, 거의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그렇지 않다 등의 다섯 단계로 주어진다.

4.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측정도구의 타당도는 4인의 논문지도위원들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척도의 신뢰도는 재조사법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1, 2차 조사시기의 사회관계망 크기간의 상관계수는 .74로 나타났다. 1, 2차 조사시 사회관계망 구성원의 중첩정도는 7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관계망 척도는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사회관계망 특성척도와 기능척도의 신뢰도 검증도 재조사법을 이용하였다. 이는 사회관계망 특성척도는 단일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회관계망 기능척도는 문항마다 지원의 내용이 달라 내적 일치도에 의한 검사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사회관계망 특성과 기능척도의 신뢰도

| 변 수 | 상관 계수 | 변 수 | 상관 계수 |
|---------|-------|--------|-------|
| 관계종류의 수 | .89 | 접촉빈도 | .49 |
| 친족구성비율 | .67 | 친밀도 | .48 |
| 친구구성비율 | .93 | 방향성 | .86 |
| 이웃구성비율 | .84 | 정서적 지원 | .93 |
| 동료구성비율 | .75 | 서비스 지원 | .86 |
| 밀도 | .74 | 물질적 지원 | .65 |
| 동질성 | .87 | 정보적 지원 | .93 |
| 지속성 | .87 | 사회활동지원 | .91 |
| 지리적 근접성 | .91 | 방해 | .81 |

접촉빈도와 친밀도를 제외한 모든 사회관계망 특성척도와 기능척도의 경우 두 조사시의 측정값간에 상관관계가 .65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접촉빈도와 친밀도의 경우에는 1, 2차 조사시 상관관계가 각각 .49와 .48로 다소 낮게 나타나 두 척도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신뢰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 두 변수가 사회관계망 특성의 중요한 차원으로 인식되므로 후속 연구의 참고자료로 제공되도록

하고자 조심스럽게 분석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이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관계망 유형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사회관계망의 유형에 따른 사회관계망 특성과 기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하위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DMR) Test를 실시하였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변 수 | 구 분 | 빈도(%) | 변 수 | 구 분 | 빈도(%) |
|----------------|-----------|-----------|-------------|--------|-----------|
| 가족주기 단계 | 형성기 | 76(12.9) | 연령 (M=38세) | 20-29세 | 80(13.6) |
| | 자녀양육기 | 101(17.1) | | 30-39세 | 251(42.6) |
| | 자녀학동기 | 120(20.4) | | 40-49세 | 164(27.8) |
| | 자녀청소년기 | 108(18.3) | | 50-59세 | 86(14.8) |
| | 자녀성년기 | 110(18.7) | | 60세이상 | 8(1.4) |
| | 자녀결혼기 | 74(12.6) | | | |
| 교육수준 | 국졸 | 38(6.5) | 남편직업 | 전문직 | 158(26.8) |
| | 중졸 | 61(10.4) | | 행정 관리직 | 74(12.6) |
| | 고졸 | 273(46.3) | | 사무직 | 144(24.4) |
| | 전문대졸 | 51(8.7) | | 판매자영업 | 93(15.8) |
| | 대졸 | 147(25.0) | | 서비스직 | 66(11.2) |
| | 대학원졸 | 19(3.2) | | 운수 생산직 | 36(6.1) |
| 가족소득 (M=214만원) | 100만원이하 | 50(8.5) | 종교 | 무직(퇴직) | 18(3.0) |
| | 101-150만원 | 130(22.0) | | 기독교 | 221(37.5) |
| | 151-200만원 | 195(33.1) | | 불교 | 150(25.5) |
| | 201-250만원 | 81(13.8) | | 천주교 | 75(12.7) |
| | 251-300만원 | 83(14.1) | | 유교 | 2(0.3) |
| | 301만원이상 | 50(8.5) | | 기타 | 2(0.3) |
| 주택형태 | 단독주택 | 169(28.7) | 거주기간 (M=5년) | 무종교 | 134(22.8) |
| | 아파트 | 370(62.8) | | 1년이하 | 148(25.0) |
| | 연립주택 | 16(2.7) | | 2-5년 | 285(48.5) |
| | 다세대주택 | 24(4.1) | | 6-10년 | 103(17.5) |
| | 기타 | 10(1.7) | | 11-20년 | 40(6.8) |
| | | | | 21년이상 | 13(2.2) |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2. 사회관계망의 유형화

1) 사회관계망 다양성에 따른 사회관계망의 분류

먼저 사회관계망 다양성을 기준으로 사회관계망을 분류하였다. 관계범주의 수가 1개인 경우 폐쇄형, 2~3개인 경우 반개방형 4개인 경우 개방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분류된 사회관계망 유형의 분포경향은 <표 4>과 같다.

응답자의 74.2%가 2~3종류의 관계범주로 구성된 반개방형의 사회관계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종류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개방형은 20.9%의 비율을 보이고 한가지 관계범주만으로 이루어진 폐쇄형은 단지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사회적 유대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개인마다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의 범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사회관계망 다양성에 따른 사회관계망 유형의 분포

| 유형 | 빈도(%) |
|------|-----------|
| 폐쇄형 | 34(5.8) |
| 반개방형 | 432(74.2) |
| 개방형 | 123(20.9) |
| 계 | 589(100) |

2) 관계범주별 지배성에 따른 사회관계망의 분류

사회관계망내에서 구성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관계범주별 지배적인 관계범주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른 사회관계망의 유형은 관계범주별 지배성에 의해 친족지배형, 친구지배형, 이웃지배형, 동료지배형 그리고 균분형으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의 전반적인 분포경향은 <표 5>와 같다

<표 5> 관계범주별 지배성에 따른 사회관계망 유형의 분포

| 유형 | | 빈도(%) |
|-----|----|-----------|
| 지배형 | 친족 | 112(19.0) |
| | 친구 | 65(11.0) |
| | 이웃 | 81(13.0) |
| | 동료 | 50(8.5) |
| 균분형 | | 281(47.7) |

친족지배형이 19.0% 친구지배형이 11.0% 이웃지배형이 13.0% 동료지배형 8.5% 균분형이 47.7%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관계범주들이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배형 중에서는 친족지배형이 19.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이웃지배형이 많으며 동료지배형은 8.5%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오선주, 1992)에서 친정친족이 주요 사회관계망인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이 이웃 그리고 시가친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3) 다양성과 지배성의 조합에 의한 사회관계망의 분류

사회관계망 구성형태의 두차원에 의해 사회관계망을 유형화 하기 위해 사회관계망 다양성에 따라 분류된 유형과 관계범주별 지배성에 따라 분류된 유형을 교차시켜 보았다. 교차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다양성과 관계범주지배성의 조합에 의한 사회관계망 유형

| 다양성 지배성 | | 폐쇄형 | 반개방형 | 개방형 |
|-------------------|----|--------------------|----------------------|----------------------|
| | | 친족 | 폐쇄친족지배형 10(1.7) | 반개방친족지배형 98(16.6) |
| 지배 비 친 족 | 친구 | 폐쇄친구지배형 4(0.7) | 반개방친구지배형 58(9.8) | 개방친구지배형 3(0.5) |
| | 이웃 | 폐쇄이웃지배형 13(2.2) | 반개방이웃지배형 65(11.0) | 개방이웃지배형 3(0.5) |
| | 동료 | 폐쇄동료지배형 7(1.2) | 반개방동료지배형 35(5.9) | 개방동료지배형 8(1.4) |
| 균분형 | | | 반개방균분형 176(29.9) | 개방균분형 106(18.0) |

두 기준에 의한 유형들을 교차한 결과 총 14개의 유형이 조합되었다. 각 유형의 전반적인 분포 경향을 살펴보면 반개방균분형이 29.9%로 14개 유형 중 가장 많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개방균분형이 18.0%, 반개방친족지배형이 16.6%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폐쇄친구지배형 폐쇄동료지배형 그리고 개방친족지배형 개방친구지배형 개방이웃지배형 개방동료지배형 등은 1% 내외의 매우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들은 사례 수가 극히 부족하여 실증적 분석에서 독자적인 유형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므로 통합조정이 필요하였다.

4) 사회관계망 유형의 조정과 명칭부여

사회관계망 유형화의 마지막단계로 사회관계망 다양성과 관계범주별 지배성의 조합에 의해 분류된 각 사회관계망 유형집단의 사례 수를 고려하여 통합 조정된 후 각 유형의 명칭을 부여하였다.

폐쇄친구지배형과 폐쇄동료지배형은 매우 적은 사례 수를 보이므로 통합이 필요하였다. 선행연구(이광자, 1988; Chatters, et al., 1985)에서는 관계범주들을 친족과 비친족으로 대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비친족 관계들 간에는 여러 측면에서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분류방법을 참고하여 폐쇄친구지배형과 폐쇄동료지배형을 폐쇄이웃지배형과 함께 폐쇄비친족지배형으로 통합하였다.1)

또한 4개의 개방지배형들도 사례 수가 매우 적어서 이들에 대한 통합조정이 필요하였다. 4개의 개방지배형들을 반개방지배형에 포함시키는 방법,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 개방균분형에 포

1) 폐쇄친구지배형, 폐쇄이웃지배형, 폐쇄동료지배형 등 세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세가지 사회관계망 유형의 사회관계망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각 유형집단의 사례수가 매우 적어서 비모수통계기법인 크루스칼-왈리스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8개 차원의 사회관계망 특성중 방향성에서만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이며 다른 7가지 사회관계망 특성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세 유형을 폐쇄비친족지배형으로 통합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합시키는 방법 등이 고려되었다. 모든 관계범주를 포함하고 있는 개방지배형의 경우 지배적인 관계범주가 존재하지만 특정한 관계범주의 지배적인 성향이 반개방지배형보다는 약하고 오히려 개방 균분형과 유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들은 모두 개방 균분형에 포함시켰다.²⁾ 이상과 같은 통합조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8개의 사회관계망 유형이 결정되었다.

다음으로 이상에서 결정된 8개의 사회관계망 유형에 대하여 명칭을 부여하였다. 먼저 폐쇄형과 지배형이 조합된 사회관계망 유형은 단일한 관계범주로 이루어지므로 폐쇄친족지배형을 친족단독형 폐쇄비친족지배형을 비친족단독형이라 명명하였다. 반개방형과 지배형이 조합된 유형들은 사회관계망내에 두, 세 개의 관계범주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 한가지 관계범주가 다른 관계범주보다 구성비율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므로 친족 중심형 친구중심형 이웃중심형 동료중심형이란 명칭을 부여하였다.

반개방과 균분형이 조합된 사회관계망 유형은 2~3개의 관계범주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이 서로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양립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병립형이라 부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개방형과 균분형이 조합된 유형은 모든 관계범주들이 구성비율 50%이하로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분산형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이상과 같이 분류된 8개 사회관계망 유형의 전반적 분포경향은 <표 7>과 같다. 병립형이 29.9%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분산형으로 20.9%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은 친족중심형이 16.6%, 이웃중심형이 11.0%, 친구중심형이 9.8%의 순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폐쇄형인 친족단독형과 비친족단독형은 각각 1.7%와, 4.1%로 매우 낮은 비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2~3개의 관계범주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가족이 가장 많고, 단일한 관계범주로만 구성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경우는 극히 적은 일부 가족에 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친족을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가족의 비율은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오던 것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족들이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 다양한 구성형태를 가지는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2) 개방친족지배형, 개방친구지배형, 개방이웃지배형, 개방동료지배형 등 4개의 개방지배형들을 개방균분형과 함께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5개 유형들 간에 사회관계망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여 보았다. 각 유형들의 사례수가 매우 적어서 비모수 통계기법인 크루스칼-왈리스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8개 차원의 사회관계망 특성중 친밀성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p<.05) 것으로 나타났을 뿐 나머지 7가지 사회관계망 특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개방지배형들과 개방균분형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회관계망 유형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표 7> 사회관계망 구성형태에 의한 사회관계망 유형

| 다양성 지배성 | | 폐쇄형 | | 반개방형 | 개방형 |
|------------|-----|------------------|--------------------|-------------------|------------------|
| | | 친족 | 비친족 | | |
| 지배형 | 친족 | 친족단독형 10(1.7) | | 친족중심형 98(16.6) | 분산형 123(20.9) |
| | 비친족 | 친구 | 비친족 단독형 24(4.1) | 친구중심형 58(9.8) | |
| | | 이웃 | | 이웃중심형 65(11.0) | |
| | | 동료 | | 동료중심형 35(5.9) | |
| 균분형 | | | | 병립형 176(29.9) | |

3. 사회관계망 유형별 특성

사회관계망 유형에 따른 구조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8가지 사회관계망 특성은 유형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관계망 크기는 분산형이 가장 크고 친족단독형과 비친족단독형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밀도는 비친족단독형과 친족단독형이 각각 가장 높고 분산형이 가장 낮았다. 친족단독형과 비친족단독형은 구성원의 2/3 이상이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긴밀한 관계망이며 분산형은 단지 구성원의 1/4정도만 서로 알고 지내는 소원한 관계망이라 할 수 있다.

동질성은 비친족단독형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친족단독형이 낮게 나타났다. 비친족단독형은 대체로 중심된 가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매우 유사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반면 친족단독형은 대체로 중심된 가족과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친족관계는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관계이므로 서로 상이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도 관계를 유지하게 되지만 이웃이나 친구관계는 자발적인 선택과 관여에 기반한 관계로서 서로 유사한 배경에 있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속성은 친족단독형이 가장 크고 비친족단독형과 이웃중심형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친족단독형을 형성하고 있는 주부들은 관계망 구성원들과 평균 10년 이상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비친족단독형이나 이웃중심형을 형성하고 있는 주부들은 관계망 구성원들과 평균 5년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친족관계가 이웃관계에 비하여 관계 지속기간이 더 길다고 보고하는 선행연구(성규탁·박영란, 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지리적 근접성은 비친족단독형, 이웃중심형, 동료중심형의 순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친족단독형과 친족중심형, 그리고 친구중심형에서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웃관계와 동료관계가 지배적인 유형의 구성원들과는 가까이 살고 있지만 친족관계가 지

<표 8> 사회관계망 유형에 따른 사회관계망 특성의 분산분석

| 특성 | 유형 | 친족 단독 | 비친족 단독 | 친족 중심 | 친구 중심 | 이웃 중심 | 동료 중심 | 병립 | 분산 | F값 |
|------------|------------|----------|-----------|----------|----------|----------|----------|--------|--------|--------------|
| 크기 | M(SD) | 4.5 | 4.8 | 7.7 | 7.4 | 8.9 | 9.3 | 8.0 | 12.6 | *** 20.53 |
| | 8.8(4.8) | (2.6) | (2.7) | (4.3) | (3.5) | (4.4) | (4.6) | (4.3) | (4.9) | |
| | DMR | c | c | b | b | b | b | b | a | |
| 밀도 | M(SD) | 64.0 | 68.0 | 50.2 | 46.4 | 48.2 | 48.5 | 40.4 | 27.5 | *** 10.43 |
| | 42.7(29.5) | (38.6) | (33.6) | (26.0) | (25.1) | (21.9) | (22.1) | (37.4) | (14.1) | |
| | DMR | ab | a | b | bc | bc | bc | c | d | |
| 동질성 | M(SD) | 33.8 | 77.2 | 53.7 | 63.5 | 65.4 | 49.3 | 56.3 | 50.4 | *** 6.50 |
| | 56.4(26.7) | (39.9) | (29.1) | (27.2) | (25.8) | (26.3) | (29.8) | (26.0) | (21.0) | |
| | DMR | d | a | c | b | ab | cd | bc | cd | |
| 지속성 | M(SD) | 4.4 | 2.7 | 3.8 | 3.5 | 2.8 | 3.2 | 3.4 | 3.3 | *** 20.65 |
| | 3.3(0.7) | (0.7) | (0.8) | (0.6) | (0.6) | (0.7) | (0.6) | (0.6) | (0.5) | |
| | DMR | a | e | b | c | e | d | cd | d | |
| 지리적근 접성 | M(SD) | 3.3 | 4.5 | 3.3 | 3.5 | 4.2 | 4.0 | 3.7 | 3.6 | *** 17.05 |
| | 3.7(0.7) | (0.8) | (0.8) | (0.7) | (0.8) | (0.6) | (0.5) | (0.8) | (0.6) | |
| | DMR | d | a | d | d | ab | b | c | cd | |
| 접촉 빈도 | M(SD) | 3.7 | 4.0 | 3.5 | 3.6 | 3.8 | 3.6 | 3.5 | 3.4 | *** 5.32 |
| | 3.5(0.6) | (0.6) | (0.6) | (0.6) | (0.6) | (0.8) | (0.6) | (0.6) | (0.6) | |
| | DMR | ab | a | c | b | ab | bc | c | c | |
| 친밀도 | M(SD) | 2.8 | 2.4 | 2.4 | 2.4 | 2.2 | 2.3 | 2.3 | 2.3 | *** 4.19 |
| | 2.3(0.4) | (0.3) | (0.6) | (0.3) | (0.3) | (0.4) | (0.3) | (0.4) | (0.3) | |
| | DMR | a | bc | b | b | c | bc | bc | bc | |
| 방향성 | M(SD) | 3.8 | 3.1 | 3.1 | 3.0 | 3.0 | 2.9 | 3.0 | 3.0 | *** 3.75 |
| | 3.0(0.5) | (0.7) | (0.4) | (0.7) | (0.7) | (0.3) | (0.4) | (0.4) | (0.4) | |
| | DMR | a | b | b | b | b | b | b | b | |

a b c: 동일한 문자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 p<.001

배적인 유형과 친구관계가 지배적인 유형의 구성원들과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접촉빈도는 비친족단독형, 친족단독형, 이웃중심형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친족중심형과 병립형, 그리고 분산형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웃관계가 지배적인 유형은 구성원들과 가까이 살고 있으므로 자주 접촉하게 되나 친구 중심형은 구성원들이 멀리 사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주 접촉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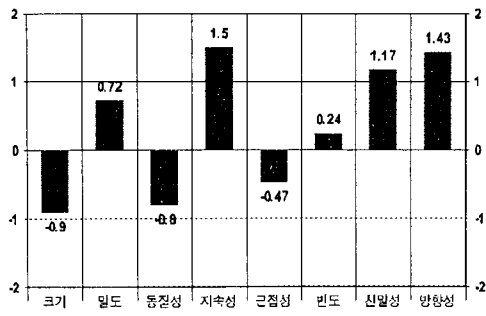
그러나 친족단독형의 경우는 구성원들이 멀리 사는 경향이 있지만 모든 일을 소수의 친족에게만 의존하므로 지리적 거리에 구애되지 않고 자주 접촉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친밀도는 친족단독형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친족중심형과 친구중심형이 높은 반면 이웃중심형이 가장 낮았다. 방향성은 친족단독형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다른 유형들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단독형은 호혜적인 성향이 낮고 일방적으로 제공적 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다른 유형들은 모두 호혜적 성향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족관계는 쌍방향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드물고 친구관계나 이웃관계 등 비친족관계는 대다수가 쌍방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하는 선행연구(성규탁, 박영란, 1988; 이광자, 1988)와 일치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관계망 유형별로 8개 사회관계망 특성의 표준점수를 비교하여 각 사회관계망 유형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각 유형의 사회관계망 특성의 표준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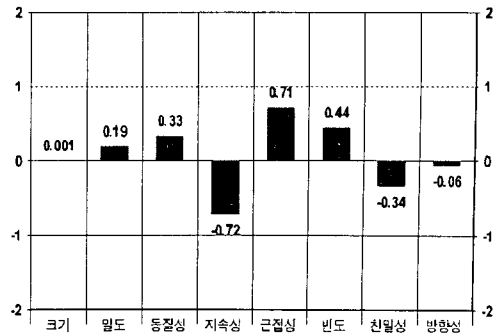
1>에서 <그림 8>까지 제시하였다.

친족단독형은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크기가 매우 작고 밀도는 매우 높으며, 동질성은 매우 낮게 나타난다. 또한 지속성이 매우 크며 지리적 근접성은 매우 작으나 접촉빈도는 약간 높은 편이다. 친밀도가 매우 높고 방향성은 호혜적인 성향이 낮고 제공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친족단독형은 크기와 밀도를 제외한 다른 특성들은 대체로 친족단독형과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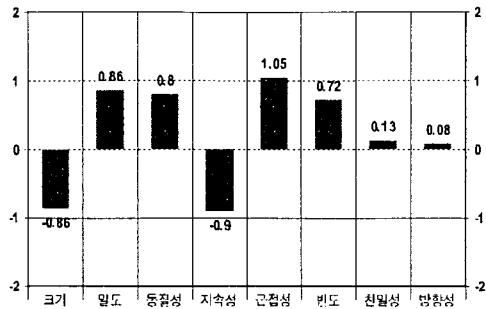
친족중심형, 친구중심형, 이웃중심형, 동료중심형 등 4개의 중심형들은 대체로 단독형과 균분형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유형들은 공통적으로 사회관계망 내에 두 세 개의 관계범주를 포함하므로 크기에서 서로 비슷하게 7~9명의 중간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밀도에서도 구성원의 절반정도가 서로 알고 지내는 정도로 중간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유형들의 사회관계망 특성이 나타나는 양상이 유사하다. 즉 사회관계망 내에 포함되는 관계범주의 비율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므로 지배적인 관계범주의 고유한 성격이 드러나지만 다른 관계범주들의 성격에 영향을 받아 다소 약화되어 나타나므로 중간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4개의 중심형들은 각기 지배적인 관계범주의 종류가 다르므로 동질성을 비롯한 6개 사회관계망 특성은 상반되게 나타난다. 친족중심형은 동질성과 지리적 근접성, 접촉빈도는 평균보다 약간 낮고, 지속성과 친밀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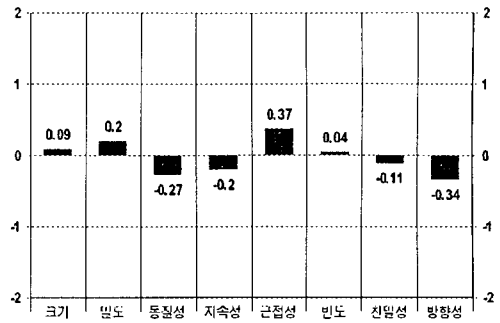
<그림 1> 친족단독형의 사회관계망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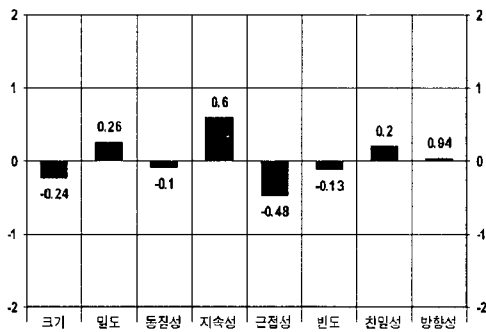
<그림 5> 이웃중심형의 사회관계망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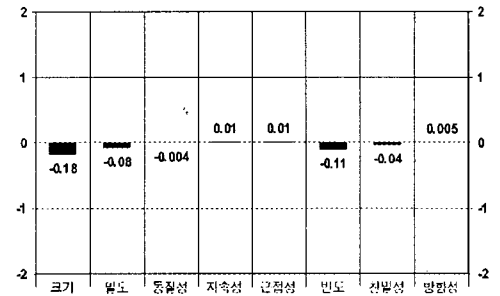
<그림 2> 비친족단독형의 사회관계망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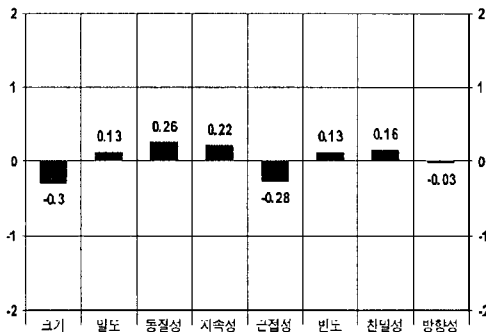
<그림 6> 동료중심형의 사회관계망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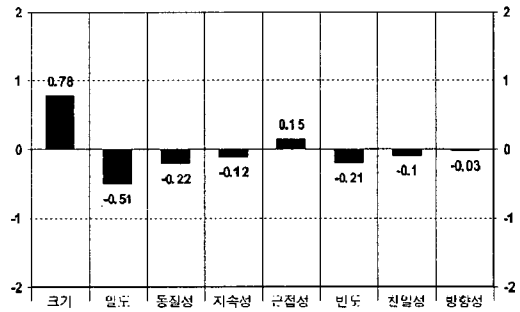
<그림 3> 친족중심형의 사회관계망 특성



<그림 7> 병립형의 사회관계망 특성



<그림 4> 친구중심형의 사회관계망 특성



<그림 8> 분산형의 사회관계망 특성

<표 9> 사회관계망 유형에 따른 총기능량의 분산분석

| | | 친족 단독형 | 비친족 단독형 | 친족 중심형 | 친구 중심형 | 이웃 중심형 | 동료 중심형 | 병립형 | 분산형 | F |
|------------|------------|-----------|------------|-----------|-----------|-----------|-----------|--------|--------|--------------|
| 정서적 지원 | M(SD) | 18.8 | 22.8 | 37.2 | 37.6 | 41.3 | 42.7 | 38.3 | 58.5 | *** 13.81 |
| | 41.9(25.3) | (16.3) | (10.2) | (21.3) | (19.2) | (25.1) | (26.3) | (21.6) | (29.8) | |
| | DMR | c | c | b | b | b | b | b | a | |
| 서비스 지원 | M(SD) | 12.2 | 19.0 | 22.7 | 22.2 | 30.6 | 26.7 | 23.8 | 36.4 | *** 7.81 |
| | 26.6(20.0) | (11.2) | (11.7) | (15.5) | (15.7) | (24.2) | (14.3) | (18.2) | (24.2) | |
| | DMR | b | b | b | b | a | ab | b | a | |
| 물질적 지원 | M(SD) | 13.5 | 17.8 | 26.2 | 26.7 | 30.1 | 29.8 | 26.0 | 41.2 | *** 8.38 |
| | 29.4(22.1) | (11.6) | (13.4) | (17.3) | (17.5) | (24.3) | (21.2) | (19.7) | (26.8) | |
| | DMR | c | c | bc | bc | b | bc | bc | a | |
| 정보적 지원 | M(SD) | 14.3 | 15.7 | 26.9 | 25.3 | 29.5 | 31.7 | 26.8 | 43.4 | *** 11.30 |
| | 30.1(21.8) | (13.6) | (11.6) | (18.8) | (16.7) | (24.2) | (19.9) | (18.6) | (25.5) | |
| | DMR | bc | c | b | bc | b | b | b | a | |
| 사회활동 지원 | M(SD) | 8.7 | 9.0 | 14.6 | 14.2 | 17.2 | 22.6 | 14.7 | 24.9 | *** 8.42 |
| | 17.2(15.3) | (12.5) | (9.8) | (13.1) | (10.6) | (15.1) | (15.0) | (13.2) | (19.9) | |
| | DMR | bc | c | bc | bc | b | ab | bc | a | |
| 방해 | M(SD) | 4.2 | 1.4 | 7.5 | 3.2 | 3.5 | 6.9 | 5.6 | 8.2 | *** 4.18 |
| | 5.9(8.9) | (6.9) | (4.8) | (8.8) | (5.1) | (6.1) | (10.1) | (9.0) | (10.8) | |
| | DMR | abc | c | a | bc | bc | a | b | a | |

a b c: 동일한 문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 p<.05 *** p<.001

평균보다 높은 반면 이웃중심형은 이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친구중심형은 동질성, 지속성, 친밀도는 평균보다 약간 높고 지리적 근접성은 약간 낮게 나타나는 반면 동료중심형은 이와 반대로 나타났다.

병립형은 크기와 밀도를 비롯한 8개 차원의 모든 사회관계망 특성이 거의 평균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관계망 내에 지배적인 관계범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각 관계범주들의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평균수준으로 나타나는 병립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크기는 8명이며 밀도는 전체평균 40.4%로 소원한 편이었다. 동질성은 56.3%로 관계망 구성원의 절반정도가 주부와 사회경제적 배경이 유사하며 지속성은 3.4로 주부들이 관계망 구성원들과 관계를 유지해 온 기간이 평균 10년 내외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적 근접성은 3.7로 각 사회관계망 구성원들과 평균 차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로 떨어져 있으며 접촉빈도는 3.5로 각 관계망 구성원들과 평균 2주에 한 두 번 정도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밀도는 2.3으로 각 관계망 구성원들에 대하여 약간 친밀함을 느끼는 정도이다. 방

<표 10> 사회관계망 유형에 따른 평균 기능수준의 차이

| | | 친족 단독형 | 비친족 단독형 | 친족 중심형 | 친구 중심형 | 이웃 중심형 | 동료 중심형 | 병립형 | 분산형 | F |
|------------|----------|-----------|------------|-----------|-----------|-----------|-----------|-------|-------|-------------|
| 정서적 지원 | M(SD) | 2.6 | 2.7 | 2.5 | 2.6 | 2.4 | 2.3 | 2.5 | 2.3 | 1.90(ns.) |
| | 2.4(0.7) | (0.9) | (0.9) | (0.6) | (0.7) | (0.7) | (0.7) | (0.7) | (0.6) | |
| | DMR | ab | a | ab | a | ab | ab | ab | b | |
| 서비스 지원 | M(SD) | 1.9 | 2.2 | 1.6 | 1.5 | 1.7 | 1.5 | 1.5 | 1.4 | ** 3.56 |
| | 1.6(0.8) | (1.1) | (1.0) | (0.5) | (0.7) | (0.9) | (0.7) | (0.8) | (0.7) | |
| | DMR | ab | a | b | b | b | b | b | b | |
| 물질적 지원 | M(SD) | 1.9 | 2.0 | 1.8 | 1.8 | 1.7 | 1.7 | 1.7 | 1.6 | 0.84(ns.) |
| | 1.7(0.9) | (1.1) | (1.3) | (0.8) | (0.9) | (0.9) | (0.9) | (0.9) | (0.8) | |
| | DMR | | | | | | | | | |
| 정보적 지원 | M(SD) | 2.0 | 1.8 | 1.8 | 1.8 | 1.6 | 1.8 | 1.7 | 1.7 | 0.42(ns.) |
| | 1.7(0.8) | (0.8) | (1.1) | (0.8) | (1.0) | (0.9) | (0.8) | (0.8) | (0.7) | |
| | DMR | | | | | | | | | |
| 사회활동 지원 | M(SD) | 1.1 | 1.0 | 0.9 | 1.0 | 0.9 | 1.2 | 0.9 | 1.0 | 1.14(ns.) |
| | 1.0(0.6) | (0.9) | (0.9) | (0.7) | (0.6) | (0.6) | (0.7) | (0.6) | (0.7) | |
| | DMR | ab | ab | b | ab | ab | a | b | ab | |
| 방해 | M(SD) | 0.3 | 0.2 | 0.5 | 0.2 | 0.2 | 0.4 | 0.3 | 0.3 | *** 3.98 |
| | 0.3(0.5) | (0.4) | (0.4) | (0.5) | (0.3) | (0.4) | (0.5) | (0.5) | (0.4) | |
| | DMR | abc | bc | a | bc | c | ab | b | b | |

a b c: 동일한 문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 p<.05 *** p<.001

향성은 3.0으로 호혜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분산형은 크기가 매우 크고 밀도는 매우 낮게 나타난다. 반면에 동질성, 지속성, 지리적 근접성, 접촉빈도, 친밀도, 방향성은 병립형과 마찬가지로 평균수준에 가깝다.

병립형과 분산형은 공통적으로 사회관계망 내에 관계범주들이 고르게 분포하는 균분형이므로 대부분의 사회관계망 특성이 평균적인 수준으로 나타나는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4. 사회관계망 유형별 기능정도

사회관계망 유형에 따라 사회관계망 기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능영역별로 총기능량과 평균기능수준에 대하여 일원분산분석과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9>와 <표 10>으로 제시하였다.

총기능량이란 기능영역별로 모든 사회관계망 구성원의 기능수행 정도를 합한 것이며 이러한 총기능량을 사회관계망 구성원의 수로 나눈 것이 평균 기능수준이다. 총기능량은 사회관계망이 제공하는 각 영역별 사회적 지원과 방해의 실제적인 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어떠한 유형이 어떤 종류의 사회적 지원과 방해를 좀더 많이 제공하는지 비교할 수 있게 해 준다.

<표 9>에 의하면 사회관계망 유형에 따라 모든 기능영역에서 총기능량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서적 지원, 물질적 지원, 정보적 지원, 사회활동적 지원의 총량은 분산형에서 매우 크게 나타난 반면 친족단독형과 비친족단독형에서 매우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총서비스지원량은 분산형과 이웃중심형이 다른 유형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형들의 총서비스지원량이 가장 적게 나타나지 않고 중심형들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단독형들의 평균 서비스 지원수준이 높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총방해량은 분산형과 친족중심형 그리고 동료중심형에서 크고 비친족단독형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것은 친족중심형의 경우 평균 방해수준이 매우 높아서 총방해량에 영향을 미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분산형의 경우에는 비록 방해적인 성향이 낮지만 규모가 매우 큰 유형이기 때문에 총방해량이 크게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표 10>에 의하면 사회관계망 유형에 따라 평균 서비스지원 수준과 방해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비친족단독형의 평균 서비스지원 수준이 친족단독형을 제외한 6개의 유형들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친족단독형의 구성원들은 다른 유형의 구성원들에 비해 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평균 방해수준은 지원수준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관계망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친족중심형이 다른 유형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반면 이웃 중심형이 다른 유형들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친족중심

형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가족의 일에 간섭하거나 지나치게 요구적이어서 가족과 갈등을 일으키는 구성원의 비율이 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로 서비스 지원을 제외하고는 사회관계망 유형에 따라 각 영역의 지원수준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가족의 사회관계망은 구성형태에 따라 친족단독형, 비친족단독형, 친족중심형, 친구중심형, 이웃중심형, 동료중심형, 병립형, 분산형 등 8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두 세 종류의 관계범주들이 고르게 분포하는 병립형이 30%정도로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며 단일한 관계범주로만 이루어진 친족단독형(1.7%)과 비친족 단독형(4.1%)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유형이다. 이에 따르면 가족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부에 따라서 사회관계망내에 포함되는 관계범주의 수와 종류가 다를 뿐 아니라 그것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다르다. 즉 주부들은 각기 다른 사회적 세계에서 살고 있다 하겠다.

둘째, 사회관계망 유형은 각기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병립형은 대부분의 사회관계망 특성점수가 평균에 가깝다. 이는 사회관계망 내에 두 세 개의 관계범주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사회관계망내에 포함된 관계범주들이 비슷한 비율로 존재하므로 관계범주들의 고유한 성격이 서로 상쇄되어 사회관계망 특성이 중립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병립형의 평균에 가까운 성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8명정도의 크기로 관계망 구성원간의 관계가 소원한 편이다. 구성원의 절반이상이 사회경제적 배경이 유사하며 구성원들과 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평균 10년 정도 된다. 구성원들이 차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떨어져 있으며 평균 2주에 한 두 번 정도 접촉하고 구성원들에게 약간 친밀감 느끼며 구성원과의 교류에서 호혜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병립형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사회관계망 유형은 분산형이다. 분산형은 병립형과 마찬가지로 사회관계망내에 관계범주들이 고르게 분포하므로 대부분의 사회관계망 특성이 평균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회관계망내에 포함되는 관계범주의 수가 많으므로 병립형보다 규모는 더 크고(12~13명) 밀도는 더 낮다.

균분형들과 매우 대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유형이 단일한 관계범주로 구성된 친족단독형과 비친족단독형이다. 이 유형들은 단일한 관계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크기가 매우 작고 밀도가 매우 높으며 여러 사회관계망 특성들이 매우 높거나 낮게 극단적인 수준으로 나타난다. 친족단독형은 크기가 4~5명으로 매우 작고 긴밀하며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동질적이다. 또한

구성원들과 관계 유지기간이 매우 길고, 친밀도가 높고 가족에게 받기보다는 좀 더 주는 편이다.

비친족 단독형은 규모가 매우 작고 긴밀하며 접촉빈도가 높은 점에서 친족단독형과 매우 유사하나 관계범주의 고유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특성에 있어서는 서로 상반되는 경향이 있다. 즉 비친족단독형은 관계지속 기간이 짧으며 친밀도는 낮고 호혜적인 성향이 매우 크다.

친족중심형, 친구중심형, 이웃중심형, 동료중심형 등 4개의 중심형들은 대략 균분형들과 단독형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유형들은 공통적으로 사회관계망 내에 두 세 개의 관계범주를 포함하므로 서로 비슷한 구조적 특성을 나타낸다. 7~9명 정도로 중간수준의 크기를 가지고 구성원의 절반정도가 서로 알고 지내는 중간수준의 밀도를 나타낸다. 사회관계망 내에 포함되는 관계범주의 비율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므로 지배적인 관계범주의 고유한 성격이 드러나지만 다른 관계범주들의 성격에 영향을 받아 다소 약화되어 나타나므로 평균적인 수준보다 약간 높거나 낮은 중간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4가지 중심형들은 각기 지배적인 관계범주의 종류가 다르므로 동질성을 비롯한 6개 사회관계망 특성은 상반되게 나타난다. 친족중심형은 동질성과 지리적 근접성, 접촉빈도는 평균보다 약간 낮고, 지속성과 친밀도는 평균보다 높은 반면 이웃중심형은 이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친구중심형은 동질성, 지속성, 친밀도는 평균보다 약간 높고 지리적 근접성은 약간 낮게 나타나는 반면 동료중심형은 이와 반대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각 사회관계망 유형의 차별적인 성격은 가족들이 그들 스스로 형성한 사회적 세계로부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것임을 시사한다. 사회관계망 유형에 따라 그 조직과 상호작용 패턴이 다르므로 전체로서 사회관계망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영향을 미치는 정도나 가족이 사회관계망에 대하여 부여하는 의미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가족들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에 대한 분석은 가족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관계망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영역별 총 지원량은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지원수준은 대체로 유사하다. 6개의 기능영역 중 서비스지원과 방해를 제외한 정서적 지원, 물질적 지원, 정보적 지원, 사회활동적 지원의 평균 수준은 유사하다. 비친족단독형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평균 서비스 지원수준이 높고 친족중심형이 다른 유형들 보다 평균 방해 수준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관계망, 또는 친족중심형의 평균 기능수준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어떤 특정한 사회관계망 유형도 다른 유형들보다 구성원 1인당 지원정도가 더 높지 않았다.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사회활동적 지원의 총기능량은 분산형이 가장 크고 친족단독형과 비친족단독형이 가장 적었다. 이는 사회관계망 유형에 따라 평균 지원수준에 차이가 없으므로

총지원량은 규모가 큰 유형에서 크고 규모가 작은 유형에서 작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총방해량은 분산형과 친족중심형에서 크고 비친족단독형에서 가장 작았다. 이것은 친족중심형의 평균 방해 수준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규모가 다소 크기 때문이다. 분산형의 경우, 비록 방해적인 성향은 낮지만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총방해량이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분산형의 총방해량은 총지원량과 비교하면 극히 적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면 지원의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8개 사회관계망 유형중에서 분산형이 가장 바람직한 사회관계망 유형이며 이웃중심형이나 동료중심형도 가족에게 매우 기능적인 사회관계망 유형인 것으로 생각된다. 분산형의 관계망 구성원 1인당 지원정도는 높지 않지만 관계망 크기가 크므로 가족이 받게 되는 총지원량은 매우 커진다. 이는 규모가 작거나 많은 친족으로 구성된 사회관계망의 평균 지원수준이 규모가 크고 비친족으로 이루어진 사회관계망보다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다. 서비스 지원영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원영역에서 사회관계망의 평균지원수준, 즉 관계망 구성원 1인당 지원정도는 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사회관계망이 제공하는 총지원량은 구성원들의 수 즉, 사회관계망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의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관계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적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관계망의 구성형태를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한 이 연구를 통하여 사회관계망의 유형화가 사회관계망을 전체로서 파악하고 사회관계망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보다 체계화된 유형화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사회관계망 유형화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기준으로 선정된 개념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준 개념을 신뢰할 만하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앞으로 사회관계망 유형 연구는 연구대상을 다양화하고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기초적인 단계로 일반가족의 비취업주부를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을 유형화하고 각 사회관계망 유형의 특성과 기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비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었다. 이에 기초하여 앞으로는 일반가족에서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관계의 범위가 매우 제약되어 있는 단독형의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가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나 나아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취약점을 가지는 가족의 사회관계망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사회관계망이 취약한 가족들이 가지는 사회적 환경의 제약성을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관계망 기능의 개념적 정교화와 이에 따른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관계망 기능은 사회적 지원으로 한정되어 왔지만 이 연구에서 사회관계망의 기능으로 방해

를 포함시킴으로써 사회관계망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초보적인 단계로서 개념적인 명료화가 미흡한 상태에 있다. 우선적으로 사회관계망 기능 개념을 분명하게 규정한 후 하위 개념으로서 방해 개념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망 기능을 적절하게 측정해 낼 수 있는 척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체로서 사회관계망의 기능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사회관계망 유형에 따라 기능수행 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각 유형의 평균적인 지원정도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족이 사회관계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양은 크기, 즉 사회관계망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의하면 가족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히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원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 이웃이나 동료관계의 형성을 통한 사회관계망의 확대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이 연구의 결과가 가족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발달시키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관계망과 가족행동의 관련성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실천적인 차원에서 사회관계망을 활용하여 가족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정책의 입안이나, 주부들의 사회적 세계를 확장하고 풍부하게 함으로써 가족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모색하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접수일 : 2002년 5월 15일
 심사완료일 : 2002년 8월 06일

【참고문헌】

변화순(1990). 영세지역 가족관계 및 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8(4), 7-38.
 서병숙·김유정(1993). 농촌 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79-92.
 성규탁·박영란(1988). 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88(겨울), 17-47.
 신기영(1990). 중년기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오선주(1990). 가족과 사회망과의 관계 심도. **인하대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17, 229-244.
 오선주(1992). 사회계층별로 본 가족의 주요 사회망, 사회망과 가족의 참여 및 구직과 사회망. **대한가정학회지**, 30(3), 177-191.
 오승환 (1990). 도시빈민의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원효중·육선화(1993). 가족의 사회관계망 구조와 관련변수.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11(1), 176-190.
 유계숙(1999). 학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착양식과 사회관계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43-54.
 이경희(1988).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부의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광자(1988). 우리나라 친족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이성희(1993). 한국의 이산가족에 관한 연구 -가족주의와 사회적 지원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이원숙(1995). **사회적망과 사회적지지이론 -실천적 접근-**. 서울: 홍익재.
 이원주(1988). 서울시 기혼남녀의 친족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정향(1980). 도시친족간의 인간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 대도시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차성란(1997). 농촌주부의 사회관계망, 자원교환, 지역사회자원인자: 대인적 자원부분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45-58
 최정아·서병숙(1992). 도시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학** 12(1), 65-78.
 최현숙(1990). 한국의 사적 원조연결망에 있어서의 상례부조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Antonucci, T. & Depner, C. (1982). Social support and informal helping relationships. In T. A. Wills(Ed.), *Basic Processes in Helping Relationships*(pp. 233-254). New York : Academic Press.
 Barrera, M. (1981). Social support in the adjustment of adolescents assessment issue. In B. H. Gottlieb(Ed.),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pp. 69-96).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
 Bott, E. (1971). *Family and Social Network*. New York: The Free Press.
 Broderick, C. B. (1988). Healing members and relationships in the intimate network. In R. M. Milardo(Ed.), *Families and Social Networks*(pp. 221-234).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Chatters, L. M., Taylor, R. J. & Jackson, J. S. (1985). Size and composition of the informal helper networks of elderly blacks. *Journal of Gerontology*, 40(5), 605-614.
 Chatters, L. M., Taylor, R. J. & Neighbors, H. W. (1989). Size of informal helper network mobilized during a serious personal problem among black america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667-676.
 Cochran, M. M. & Brassard, J. A. (1976).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Child Development*, 50, 601-616.
 Ell, K. (1984).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 and health status: A review. *Social Service Review*, 58, 133-149.
 Ellison, C. G. (1990). Family ties, friendship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black america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298-310.
 Epstein, A. L. (1969). The network and urban social organization. In J. C. Mitchell(Ed.), *Social Networks in Urban Situation*(pp. 77-116).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Fehr, B. & Perlman, D. (1985). The family as a social network and support system. In L. L'Abate(Ed.), *Handbook of Family Psychology and Therapy* (vol. 1, pp. 323-356). Homewood, I.L. : Dow-Jones Irwin.
- Fisher, J. L., Sollie, D. L., Sorell, G. T. & Green, S. K. (1989). Marital status and career stage influence on social networks of young adul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2), 521-534.
- Gaudin, J. M. Jr. & Davis, K. B. (1985). Social networks of black and white rural families : A research re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1015-1021.
- Gordon, M. & Downing, H. (1978). A multivariate test of the Bott hypothesis in an urban irish sett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 585-593.
- Gottlieb, B. H. (1981).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in community mental health. In B. H. Gottlieb(Ed.),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pp. 11-42).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Hirsch, B. J. (1988). Social networks and the coping process. In B. H. Gottlieb(Ed.),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pp. 149-170).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 House, J. S. & Kahn, R. L. (1985). Measures and concepts of social support. In S. Cohen & S. L. Syme(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pp. 83-108). New York : Academic Press.
- Ishii-Kuntz, M. & Seccombe, K. (1989). The impact of children upon social support networks throughout the life cours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777-790.
- Johnson M. P. & Milardo R. M. (1984). Network interference in pair relationships: A social psychological recasting of Slater's theory of social re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893-899.
- Lee, G. R. (1980). Kinship in the seventies: A decade review of research and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193-204.
- Leslie, L. A. & Grady, K. (1985). Change in mother'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following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663-673
- Litwak, E. & Szelenyi, I. (1969). Primary group structures and their function: kin, neighbors, and frien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4(4), 465-481.
- Litwin, H. (1996). *The Social Networks of Older People: A Cross-National Analysis*. Westport: Praeger.
- McCannell, K. (1988). Social networks and the transition to motherhood. In R. M. Milardo(Ed.), *Families and Social Networks*(pp. 83-106).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 Milardo, R. M. (1988). Family and social networks: An overview of theory and methodology. In R. M. Milardo(Ed.), *Families and Social Networks*(pp.13-47)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 Milardo, R. M. (1989).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identification of the social networks of spous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165-174.
- Mitchell, J. C. (1969). The concept and use of social networks. In J. C. Mitchell (Ed.), *Social Networks in Urban Situations*(pp. 1-50). Manchester: Manchester Univesity Press.
- Oh, S. J. (1988). Korean immigrant families and their social networks. Ph.D.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 Parish, W. L., Hao, L., & Hogon, D. P. (1991). Family support networks, welfare, and work among young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203-215.
- Petrowsky M. (1976). Marital status, sex and the social networks of the elder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749-756.
- Pittman, J. F. & Lloyd S. A. (1988). Quality of family life, social support, and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53-67.
- Rands, M. (1988). Changes in social networks following marital segregation and divorce. In R. M. Milardo(Ed.), *Families and Social Networks* (pp. 127-146).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 Robertson, E. B., Elder, G. H. Jr., Skinner, M. L. & Conger, R. D. (1991). The costs and benefits of social support i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403-416.
- Rogler, L. N. & Procidano. M. E. (1986). The effect of social networks on marital roles: A test of the Bott hypothesis in an intergenerational contex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693-701.
- Surra, K. A. (1988). The influence of the interactive network on developing relations. In R. M. Milardo (Ed.), *Families and Social Networks*(pp. 48-82).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
- Ward, R. A. (1985). Informal networks and well-bing in later life: A research agenda. *The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25(1), 55-61.
- Wellman, B. (1981). Applying network analysis to the study of support. In B. H. Gottlieb(Ed.),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pp. 171-200).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 Wilcox, B. L. (1981). Social support in adjusting to marital disruption a network analysis. In B. H. Gottlieb(Ed.)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pp. 97-115).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 Wills, T. A. (1985). Supportive funct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S. Cohen & S. L. Syme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pp. 61-82). New York: Academic Press.